



이재전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한국성문화연구소 연구원

미혼부는 없고 미혼모만 존재하는 이중적 성문화

성에 대해 질문을 하면 '다 알고 있어요' 대답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 이때 청소년들이 알고 있다는 성은 대부분 남녀간의 구체적인 행위로서의 성관계를 의미한다. 빠르면 초등학교때부터 보기 시작한 포르노를 통해서 이미 여자와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으며, 더러는 직접 경험해 본 적도 있어서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알 것도 없다는 듯 무덤덤한 표정을 짓는다.

성은 곧 성행위인가?

영어에서 성을 표현하는 단어가 섹스(sex)와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로 구분되는 것과 달리 우리말에서는 이 모든 의미가 성이라는 하나의 말로 사용된다. 흔히 섹스는 생물학적으로 구분되는 성별과 성행위로서의 성관계를 의미하고,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고 습득되는 특성에 따른 성별구분을 뜻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느낌, 행동, 욕구, 관계, 성이 구성되는 맥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성행위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느낌이나 행동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따로 떨어져 존재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관계속에서 이해되고,

실천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안다고 말하는 성에는 단지 신체적 접촉 행위만이 있을 뿐이며, 상대에 대한 배려나 성관계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책임은 들어있지 않다. 비단 청소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은 종종 전인적 성(sexuality)보다는 성행위(sex)로 이해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지표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은 공식적인 영역과 비공식적 영역에서 극단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왔다. 공식적인 영역에서 성은 생식기능 중심으로 규정되면서 보수적인 규범과 윤리적인 잣대에 따라 성적 행동이나 표현은 억압되어 왔다. 그러나 동시에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는 공식적 영역에서 억압된 성적 욕구들이 분출되면서 생식과 구별되는 은밀하고, 쾌락적인 성이 따로 추구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이중적인 성문화는 남성에게는 성에 대한 적극성과 정력을 강조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순결과 성적 소극성을 강요하는 이중 성규범과 맞물려 남성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남성중심적인 성문화를 구성하여 왔다. 매스컴의 취재열기를 높이는 청소년 성문제의 대상이 주로

여자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은 성별에 따른 이중적인 성규범이 청소년의 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티켓다방의 청소년도, 청소년 매매춘(원조교제)의 청소년도 여자이며, 미혼부는 간 데 없고 미혼모만이 문제아로 남아있다. 성교육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고, 책임감 있는 성행동보다는 몸조심과 순결지킴이 강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을 곧 성행위(sex)라고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문화에서 비롯된다. 생식과 쾌락을 분리시키고, 여성과 남성의 성을 다르게 규정하는 성문화 속에서 성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지되며 사랑과 성은 분리되고, 성은 구체적인 행위로서 남게 된다.

성의 관계적인 측면은 아예 무시되거나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사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는 성문화속에서 당연히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감정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은 따로 마련되지 못한다. 대신 신체 성장과 더불어 왕성해지는 이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주로 음담패설 및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의 음란물이며, 밤거리를 가득 메운 갖가지 '방'으로 지칭되는 유혹의 불빛들이다.

비공식적 통로로 부터 얻게 되는 성정보들은 바로 우리 사회의 이중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통해 생산된다. 비공식적 성정보의 대표적인 통로인 포르노가 보여주는 성이란 주로 성행위, 그것도 남성의 발기와 삽입, 사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여성이 성적 만족을 느끼는 지극히 일방적이고, 생식기 중심적인 행위로써, 주로 과장되고 극단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어디에도 사랑이나 친밀감을 표

현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서의 성적인 접촉의 느낌은 표현되지 않는다. 물론 포르노 내용에 대한 수용 정도는 아이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포르노 자체라기 보다는 그와 같은 포르노를 생산해내고, 내용을 정당화 시켜주는 성문화와 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의 성산업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전인적인 성문화

청소년들은 성행위에 대한 사실적 행위로서 포르노의 이미지를 수용하지만, 정작 이들이 보고 싶어 하는 포르노는 바로 표정이 담긴 낭만적인 이야기가 있는 성이라는 한 보고서(엄기호, 『포르노 All boys do it!』, 우리교육, 2000)의 내용은 우리 성교육의 출발점이 어디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성을 단순히 성행위(sex)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더라도 청소년들은 다른 한편 성행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성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과연 그들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성(sexuality)을 전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성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먼저 부모이고 선배인 우리가 성적존재로서 자신의 느낌과 욕망, 행동을 들여다보고, 내가 원하는 성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은 무시하면서 그들의 '성'에만 과도하게 반응하는 눈가림 동작은 그만두고, 과연 성이 무엇이며 자신이 원하는 성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PIPIK